

#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자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 세상

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환경과 능력은 다를지라도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와 존엄성만은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하지만 우리들은 쉽게 상대의 권리를 잊어버리고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인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한 번 반성해 보고 최소한 인간 도리라도 지켜야 한다.

최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로 소외계층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급속하게 성장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속도의 핵가족화와 사회 변화는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정의 기능을 와해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올해의 슬로건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채택하여 부부폭력과 이혼, 부부갈등과 주부우울증 등 가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정을 생각하며,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삶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때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자

우리 사회는 2000년에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2025년에는 20%가 넘는 최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오래 사는 수복(壽福)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생활안정, 여가선용, 노인성 질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1,15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 알코올중독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수질환 전문병원과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400명상 규모의 특수질환 전문센터가 건립되는 2007년도가 되면 그 동안 노인성질환을 앓고 어려움을 겪었던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노인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이슈이며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가정과 사회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효(孝)를 숭상하고 노인들의 경륜을 배워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장애인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

장애인 또한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였으며, 비장애인들의 의식변화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버스와 도시철도에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탑승설비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정책으로 장애수당을 일부 인상하고 자녀교육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7%의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조치한 바 있다.

대구시는 장애인 복지 시범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가사도우미 사업도 운영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저상버스 170대를 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2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기와 인내, 그리고 강인한 의지로 이를 극복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을 내 가족 같이 이해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장애인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재활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자.

##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자

지금 우리 사회는 고유가, 가계부실, 신용불량자와 청·장년층의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려울 때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지금 대구시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시민 1% 나눔운동」을 범시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1% 나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채근담에 '남을 대접함에 있어 조그만 너그름도 복이 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기초가 된다' 라는 격언이 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사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이 아닐까 싶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 **Z**